

한 해의 끝과 시작 알리다... '시간의 문을 열다. 2025'

영암 아천미술관 기획 초대전

내달 16일까지 본관 제1전시실 박성휘·박해경 등 작가 9인 참여 '시간의 흐름' 주제로 작품 선배 "삶의 흐름 변화 되새기는 자리"

영암에서 9명의 작가가 참여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가 한창이다.

아천미술관은 기획 초대전 '시간의 문을 열다. 2025'를 다음달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작가 9인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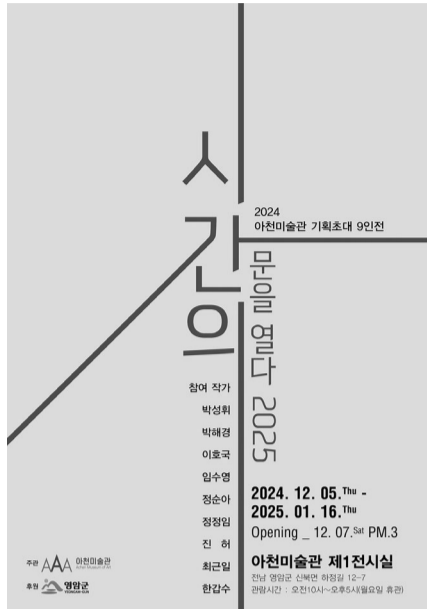
박성휘, 박해경, 이호국, 임수영, 정순아, 정정임, 진 허, 최근일, 한갑수 등 9명의 참여 작가들은 시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작품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차용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와 의미를 담아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 속 시간을 되새기게 된다.

먼저 박성휘 작가는 여성의 내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과의 대화를 작품에 담았다.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겪는 고단함과 모순,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신화적 요소와 결합해 표현된다.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들은 간절한 감정의 응축이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며, 현실과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박 작가는 미래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작품에 그리고 있으며, 한복의 단순화와 빛과 그림자를 통해 여성의 내면을 조형적으로 표현했다.

박해경 작가는 그림 '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 내적 심상과 희망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에서 꽃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된다. 단순화된 형태와 과감한 원색을 사용해 꽃의 생명력과 감정을 자유롭게 그려내며, 꿈과 희망, 행복을 드러낸다. 수국, 달항아리, 찻잔과 같은 소재들은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의 색채와 어우러져 독특한 심상을 형성한다.

이호국 작가는 점, 선, 면이라는 미술의 기본 요소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작품에 투영했다. 일상에서 발견



한 평범한 모습들에 서정적 감성을 입혀 행복의 근원을 탐구한다. 선과 점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돼 새로운 조형 언어를 형성한다. 그의 작품 속 선들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정과 사고의 흐름을 상징한다.

임수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그의 드로잉은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며, 의식과 무의식

의 경계를 넘나든다. 일상에서 스쳐 가는 감정의 흐름을 기록하는 그림은 내면을 지우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선과 점, 면이 혼재된 그의 작품은 감정의 흔적을 시각화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정순아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했다. 가을의 풍성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삼아, 인간 존재와 시간의 리듬을 표현했다. 가을 들뜬 풍경으로 보는 풍요와 나눔, 그리고 삶의 결실을 상징한다.

정정임 작가도 이번 전시에서 나뭇가지와 인간의 형상을 연결해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사람의 혈관과 나뭇가지의 형태적 유사성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며, 끝없는 반복을 통한 생명의 근원과 본질을 암시한다.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선들은 인간의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시각화한다.

진 허 작가는 그림 '나무'로 여성의 삶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나무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나무가 풍파를 견디며 성장하듯, 여성 또한 삶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 성숙해진다. 그의 작품은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

탕으로,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한다.

최근일 작가는 배꽃을 소재로 시간의 흐름과 섬세한 감정을 작품에 반영했다. 사실적인 묘사와 서정적인 감성을 결합해, 배꽃의 순박함과 연약함을 시각화했고 특히 배꽃의 흩어지는 이미지와 여백을 강조한 화면 구성은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한갑수 작가의 '기억나무' 시리즈는 상처와 변화를 견디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나무가 가진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는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담아 거칠지만, 따뜻한 감정이 드러난다.

아천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시간을 직접 주제로 삼기보다,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관람객들에게 삶의 흐름과 변화를 되새기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영암 아천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광주박물관서 만나는 '토우야 반가워!'

초등학생 동반 가족 대상 내달 7~23일 매주 화·목·토 사전 접수 진행...회당 30명

국립광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 '토우야 반가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의 연계 교육으로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교육관 체험학습실과 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의 전반부는 다채로운 상형토기와 생생한 토우 장식들을 통해 고대인들이

먼 길을 떠나는 소중한 이에게 주는 물건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이론 수업으로 이뤄진다. 이어 천연점토를 활용해 자신에게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한 후 특별전을 자율 관람이 진행된다.

교육 참여 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https://gwangju.museum.go.kr/)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회당 30명씩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또한 국립광주박물관은 더 많은 어린이가 특별전을 즐길 수 있도록 전시실에 특별전 연계 활동지를 비치한다. 활동지에 포함된 엽서를 작성해 전시관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선착순 600명에게 천연점토 교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찬기자



'찾아가는 국악원' 대상 시설 모집

전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은 전남도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칠 '찾아가는 국악원'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용인들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내년도에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다.

공연은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이뤄지며, 관람 대상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가·무·악 종합공연을 제공한다. 문화사각 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인들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향수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10일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3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자

ACC서 문화예술 진로 체험하고 미래 설계하자

내년 진로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청소년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과 'ACC 평화이야기보관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6일 ACC에 따르면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온보딩'은 내년 4~7월과 9~12월 매주 화요일에 운영되는 디지털 게임형 교육이다. ACC와 관련된 문화예술 직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회당 15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 ACC에 인턴으로 출근 후 사원증과 업무 파일을 받고 동료 인턴들을 만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등 ACC의 주요 공간에서 공연 작품 제작, 전시 기획, 아시아 문화 연구조사 등 문화예술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주어진 임무 수행 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ACC 문화창조원에서는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홍보 마케터, 테크니션(설치기술자) 등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공연이 중심인 ACC 예술극장에서는 연출가,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악감독 등의 업무를 체험하고 연구와 도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ACC 문화정보원에서는 아카이브 큐레이터,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 사서, 컨서베이터(보존처리전문



올해 진행된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ACC 제공

가) 등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ACC 평화이야기보관소'는 내년 5월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된다. 스마트 도구를 이용한 게임을 통해 종교본성, 난민 문제, 독재 권력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갈등과 폭력의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보고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참가자들은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임무를 수행하며 역사 속 평화의 목소리를 마주함으로써 공동체 가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100명 내외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

는 교육부의 진로 체험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ACC와 꿈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단체 프로그램에는 2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문화예술 진로와 아시아 문화의 역사에 담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청소년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체험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역량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Advertisement for Jnilbo news service,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